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6.24.(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진행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군사 분야에서의 조직과 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과업과 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인사 측면에 있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 이병철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 확대회의에서 전방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전쟁 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중대 문제를 심의·승인하였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30분 통일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미·중·러 패권 경쟁과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행사는 심포지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당 중앙군사위 보도내용을 보면 핵실험이나 핵실험을 암시하는 언급들은 지금 보도내용에 없는데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북한은 이번 회의 결과 보도에서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기조에 맞게 전쟁 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심의·승인했다는 내용 등을 밝힌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